

다이렉트 승적 가는 길 '방심은 금물'

광주FC, 오늘 부천 원정 '승점 사냥'

11게임 무패 행진 "패배는 없다, 오직 승리뿐"
탄탄한 공·수 조화...광주만의 축구로 승부수



프로축구 K리그2 광주FC가 부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향해 달린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2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패배를 잊은 지 오래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엄지성의 득점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무패 기록을 11경기(6승 5무)로 늘릴과 동시에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선점하는 등 부동의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리그를 장악하는 무서운 독주 체제. 하지만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다. 광주는 리그 우승과 승격을 확정 짓는 그 날까지 방심 없이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역시 엄지성과 헤이스의 활약이 돋보였다.

프로축구 K리그2 광주FC가 부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향해 달린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2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패배를 잊은 지 오래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엄지성의 득점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무패 기록을 11경기(6승 5무)로 늘릴과 동시에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선점하는 등 부동의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리그를 장악하는 무서운 독주 체제. 하지만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다. 광주는 리그 우승과 승격을 확정 짓는 그 날까지 방심 없이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역시 엄지성과 헤이스의 활약이 돋보였다.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7월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경기에서 전반 27분 팀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하지만 광주는 상대전적 11승 5무 4패로 부천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천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3승 2패)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 광주가 부침을 겪고 무패 행진 기록을 더 늘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하지만 광주는 상대전적 11승 5무 4패로 부천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천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3승 2패)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 광주가 부침을 겪고 무패 행진 기록을 더 늘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2022 국제사이클연맹(UCI) 주니어 트랙 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독주 챔피언에 오른 김채연(전남체고)이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자전거연맹 제공>

전남체고 사이클 김채연 주니어세계선수권 챔피언

500m 독주 금·스프린트 銀

대한민국 사이클 유망주 김채연(전남체고 3년)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체고는 29일 "지난 23-27일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열린 2022 UCI 주니어트랙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채연이 500m 독주에서 금메달, 개인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채연은 500m 독주 예선에서 35.103초의 기록으로 참가선수 가운데 1등으로 예선전을 통과했다.

이 기세를 이어 결승전에서는 34.871초 기록을 세우며 35.048초를 기록한 클라라 슈나이더(독일)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6월 주니어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500m 독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채연은 약 두달여만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개인스프린터 200m에서 1.394초로 예선 3위를 기록한 김채연은 예선전 1위를 기록한 클라라 슈나이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나운서(전남미용고 2년)는 500m에서 36.707초로 9위를, 스프린트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김채연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는 처음 출전하는 세계대회라 다소 긴장했지만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집중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



최혜진이 29일 열린 LPGA 투어 CP 여자오픈 4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USA TODAY=연합뉴스

최혜진 '아쉽다, 첫 우승' CP여자오픈 1타 차 준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최혜진(23)과 안나린(26)이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CP 여자오픈에서 데뷔 첫 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최혜진은 2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와 오타와 힌트 앤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로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친 최혜진은 우승자 폴라 레토(남아프리카공화국·19언더파 265타)에게 한 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안나린은 이날 버디 4개와 더블 보기 하나, 트리플 보기 하나를 묶어 한 타를 잃고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Q) 시리즈를 통과해 올해 미국에 진출한 이들은 전날 3라운드까지 16언더파 197타로 공동 선두에 오르며 데뷔 첫 승을 노렸으나 1타차 3위로 함께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레토에게 트로피를 내줬다.

최혜진은 시즌 최고 성적, 안나린은 4번째 톱10을 기록했다.

최혜진은 신인상 포인트 1천15점을 쌓아 이번 대회를 공동 56위(4언더파 280타)로 마친 아타야 티피쿰(태국·1천75점)과의 격차를 60점으로 좁혔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29일 열린 PGA 투어 챔피언십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마친 뒤 미소를 지으며 축하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딱 한타차'...임성재, 투어 챔피언십 준우승

'상금 77억원'...페덱스컵 플레이오프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2022 투어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임성재는 2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우승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21언더파 263타)에 1타가 뒤지면서 스킵 세플러(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임성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인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지금까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한국인 최고 성적은 2007년 최경주(52)가 남긴 5위였다.

임성재는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30명의 선수만 출전하는 '별들의 전쟁'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최경주의 한국인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투어 챔피언십에 벌써 네 번째 출전한 임성재는 언제나 특급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경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투어 챔피언십에서 받은 보너스 상금 575만 달러(약 77억원)를 손에 넣었다.

임성재는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는 5등 안에만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등을 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21언더파 263타로 역전 우승했다.

6타차를 뒤집고 대역전극을 연출한 매길로이는 2016년, 201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페덱스컵 챔피언에 올랐다.

두 차례 우승한 우즈(미국)를 밀어내고 페덱스컵 최다 우승 위업을 달성했다.

매길로이는 1천800만 달러(약 241억원)의 상금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다. 매길로이는 이번 시즌에 2천67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이는 PGA투어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이다. /연합뉴스

PGA 투어 4년차 임성재, 올해만 152억원 벌었다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네 번째 시즌을 화려하게 마감했다.

임성재는 29일 PGA 투어 페덱스컵 챔피언십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페덱스컵 랭킹 2위와 투어 챔피언십 준우승 모두 아시아 국적 선수로도 처음이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6차례 대회에 출전해 우승 한번과 준우승 3번을 포함해 톱10에 9번

이나 이름을 올렸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전까지 임성재는 상금 556만7천974달러(약 75억785만달러)를 모았고,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은 10위였다.

투어 챔피언십에서 받은 보너스 상금 575만달러를 합쳐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무려 1천131만7천974달러(152억6천681만원)를 상금으로 받아들였다.

종목단체 활성화·운영 공정성 확보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등급심의 시행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종목단체 활성화 및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 등급심의위원회(이하 등급심의위)를 개최하고 레크리에이션, 생활무용, 칼링, 줄다리기, 플라잉디스크 등 5개 종목단체에 대한 등급을 검토 심의했다.



이상동(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종목단체 등급심의를 통해 종목 활성화 및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종목단체의 발전은 시민과 선수의 생활과 직결된다. 시민과 선수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목단체 등급심의를 꾸준히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체육회는 검토 등 78개 회원종목단체 중 등급심의를 신청한 5개 종목단체에 대해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등급심의위를 열고 심의했다. 등급심의위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위원들을 구성했다.

등급심의위는 종목 대표성, 구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수, 보급도 및 경기력 발전성 등의 등급별 요건과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 결과 레크리에이

선, 생활무용, 칼링, 줄다리기 등 4개 종목은 등급을 승격하기로 했고 플라잉디스크는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상동(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종목단체 등급심의를 통해 종목 활성화 및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종목단체의 발전은 시민과 선수의 생활과 직결된다. 시민과 선수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목단체 등급심의를 꾸준히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지난 26일 열린 2022 대한태권도협회 파워태권도 최강전 파이널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광주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파워태권도 파이널 단체전 3위

광주대가 2022 대한태권도협회 파워태권도 최강전 파이널대회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광주대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중랑구청과의 3-4위전에서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2학년 고영훈·박성민·이사영·김명성(광주대 A팀)은 준결승에서 용인대에 아쉽게 패했지만 3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광주대 A팀은 '2022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시즌1'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파이널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강경도 광주대 태권도부 감독은 "지난해 시즌2 대회 준우승에 이어 올해에는 파이널대회 3위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이 멋진 승부를 펼쳤다"며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